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5. 여름(Summer)

여름밤 / 김귀녀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다
숫자를 잃어버린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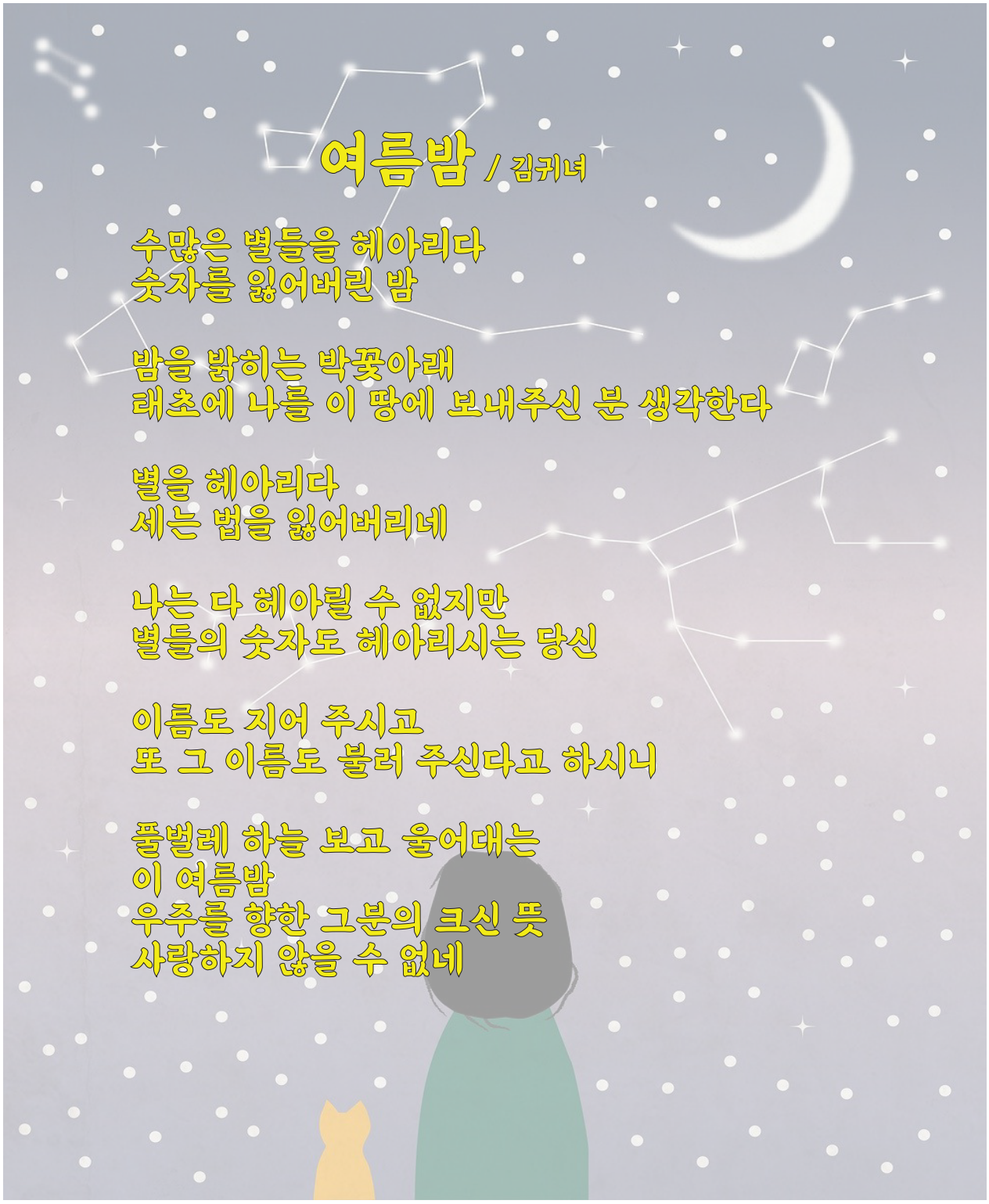
밤을 밝히는 박꽃아래
태초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생각한다

별을 헤아리다
세는 법을 잃어버리네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별들의 숫자도 헤아리시는 당신

이름도 지어 주시고
또 그 이름도 불러 주신다고 하시니

풀벌레 하늘 보고 울어대는
이 여름밤
우주를 향한 그분의 크신 뜻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쌀쌀함이 물러난 자리에 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마음을 설레게 만든 것도 잠시, 어느새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을 찾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희생으로 사순을 지내고, 부활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내드리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따스한 말씀과 사랑 어린 보살핌을 보내주셨던 교황님의 부재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분의 선종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현실에서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그분께서 알려주신 많은 가르침이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더불어 새 교황님이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교회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혼돈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서로 화합하고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희망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위한 만남과 나눔이 있었던 수녀회 소식을 나눕니다.

‘그리스-튀르기예’ 성지순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22명의 수녀님이 ‘그리스-튀르기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사도직과 공동체 안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며 투신했던 피로함을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른 여정 안에서 성인의 영성을 통해 회복하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처럼 예수님의 굳건한 제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연피정 소식

3월에 4차 연피정이 서울 가리봉 수녀원에서, 4월에 5차 연피정이 부산 양정 수녀원에서 있었습니다. 김영선 루시아 수녀님의 지도로 ‘삼대서원’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의 연피정이 마무리되었고, 피정 동안 가득 채운 영적 양식을 일상 안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소명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Judith 수녀님('삼위일체 리전' 리전장) 공식 방문

지난 3월 말부터 6월까지 한국이 속해 있는 '삼위일체 리전(Trinity Region)'의 리전장이신 Judith 수녀님의 공식 방문이 있었습니다. 관구에서 리전으로 변환된 후 리전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신 수녀님을 우리는 청사초롱의 빛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삼위일체 리전의 다섯 국가 중 가장 많은 회원과 다양한 사도직을 하는 한국의 활기참에 감탄하시며, 모든 공동체를 방문해 각 자매와 만나셨고, 공동체의 중요성 역시 다시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수녀님과의 만남을 통해 리전화 과정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FMM의 카리스마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회의 공통언어인 영어에 대한 필요성 역시 강조하시어 앞으로 수녀님들의 영어 공부가 일취월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종신서원 소식

5월 20일, 가리봉 수녀원에서 조수정 수산나 수녀님의 종신서원식이 있었습니다. 10년의 양성 과정(청원기, 수련기, 유기서원기)을 마치고 종신서원을 발하는 수녀님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가리봉 공동체 수녀님들은 몇 달 전부터 전례와 성가연습, 손님 맞을 준비 등으로 분주하게 지냈고, 이러한 수고 덕분에 수녀원을 찾은 모든 분이 편안하고 기쁘게 이날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비롯해 출신 본당인 광주 운남동성당 교우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히 수녀님의 입회 추천서를 써 주신 광주대교구 옥현진 시몬 대주교님께서 직접 종신서원 미사를 집전해 주시어 그 기쁨이 더욱 컸답니다. 광주 운남동성당은 우리 수녀님들이 오랜 시간 사도직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 계셨던 많은 수녀님과 본당 교우분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 안부를 물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이신 Judith 수녀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더욱 풍요로웠고, 수산나 수녀님은 삼위일체 리전의 홍콩 • 마카오 섹터로 파견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중국 선교를 꿈꿔오신 수녀님은 중국 본토는 아니지만, 홍콩 • 마카오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수녀님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 하실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안나 수녀님의 대통령 표창을 축하합니다!

1992년부터 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스비에르제브스카 마리안나(SWIERZEWSKA Marianna, 폴란드) 수녀님이 지난 5월 20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제18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이민자상)을 받으 셨습니다. 한국에서 지내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로 이주민들을 위한 일에 투신하셨 는데, 초반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임금 체납, 산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셨으며, 특히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더욱 활동 범위를 넓혀 이주여성 문제, 난민 문제 등에도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때 난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라는 인생' 프로그램을 진행한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민 여성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관찰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문제를 대면할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처음 해본다는 말을 듣고 수녀님 역시 그들의 현 실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표창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전에도 한국은 수녀님에게 '우리나라'였지만, 귀화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느낌을 받아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국적 취득 후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보다 어느 곳에 있던지 있는 그곳이 나의 삶의 자리라는 FMM의 카리스마에 충실하며, 선교사로서 깨어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녀님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자 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께서 주재하시므로 나는 다만 이 충실한 사랑에 나를 의탁할 뿐입니다. 만일 이 사랑에 나를 맡겨드리면 이 사랑은 나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1884년 4월 8일)

확대리전평의회 소식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확대리전평의회'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리전(Trinity Region)에 속해 있는 다섯 개 섹터(Sector : 한국, 대만, 홍콩 • 마카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평의원들과 공동체 책임자들이 모여 리전의 현실을 살피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었는데, 관구 체제에서 리전 체제로 바뀐 후 처음 가진 모임이었던 만큼 많은 준비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공동체 수녀님들이 가리봉 수녀원에 모여 먼저 의견을 모았고, 이후 zoom으로 다른 섹터의 수녀님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각 섹터와 리전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함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 IT 보조와 영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수녀님들과 모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세하게 신경써서 도와주신 가리봉 공동체 수녀님들 덕분에 첫 번째 확대리전평의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후원자의 날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5년 9월 27일(토) 오전 11시 - 후원자들을 위한 미사
내용: 미사 후 점심식사 / 이후 아나바다(서로 나눔의 장)
참석자: FMM 후원자님들, 수녀님들, 가족 • 친지들 등
아나바다장은 미리 물건을 보내셔도 되고, 당일 가져오셔도 됩니다.
** 오시는 분들은 참석 여부를 후원회 연락처로 전화, 문자,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하시어 나눔의 기쁨을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010-2821-8174)
** 차량은 주차 가능합니다.

명학이네 신앙 입문기

김영희 마리로사fmm

명학이가 성당을 찾아온 날은 아직은 코로나 여파가 남아 있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산책하시던 신부님께 다가와 약간 머뭇거리면서 성당에 다니고 싶다고 했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낮에 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하시며 설마 오겠냐고 하셨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교중미사 시간에 명학이가 약간 어색해하면서도 나타났습니다. 면담하면서 어떻게 성당에 올 생각을 했냐고 물으니 집이 성당 근처라 평소에 성당 앞을 지나다니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뭔가 마음 고생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세 분과 함께 예비자 교리를 시작했고, 교리반 동기인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교리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친밀감이 생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학이는 초등학생인 동생이 두 명 더 있습니다. 아빠가 트럭으로 시장을 다니며 야채를 팔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엄마는 동생들이 어려 다른 부업을 하지 않고 아빠의 수입에 의존해 살다보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명학이가 초등학교 때 학폭에 연루되어 학교에서 학폭회의가 열렸고, 명학이가 피해자였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인지 자신이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기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 속에 가득해서, 초등학교 담임이었던 본당 교우는 명학이를 보자 바로 알아보고 분노조절장애로 다루기가 몹시 힘들었는데, 그런 명학이가 어떻게 성당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놀라워하였습니다.

명학이는 다음 해 부활대축일에 할머니들에 끼어 '레오'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소감을 한 마디씩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히 살겠다'라는 말로 듣는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교리를 어떻게 했길래 어른들도 잘 못하는 저런 속 깊은 말을 하느냐고... "명학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거야. 네 속마음을 예수님과 다 나누고, 어디로 갈지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가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거야."라는 말들을 해 주었는데, 좀 외로워 보였던 명학이는 무척이나 든든해 하였습니다. 세례식에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꽃다발을 가져온 이가 없어 함께 세례받으신 할머니가 받은 꽃다발을 빌려주어 세례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명학이 엄마가 중학생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 성당에 갔다가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 성당을 다닌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학이도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묵은 교적을 찾아내었고, 개신교 태중 신자인 아빠를 설득해 관면 혼배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명학이를 통해 엄마를 다시 하느님 품으로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명학이는 자기 방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학교 가기 전에도 성호를 긋고 기도한 후 집을 나선다고 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엄마를 따라 동생들도 성당에 오곤 했는데, 막내 남동생은 그해 여름에 세례와 첫영성체를 하고 어린이 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좀 망설이다가 교리를 받아보고 결정하

겠다고 하여 6학년 딸아이와 같이 6개월 교리를 하고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명학이가 씨앗이 되어 온 가족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엄마는 성가대로, 아빠는 레지오, 위령회원, 미사 독서 봉사자로, 방과 후 교실에서 피아노를 배운 여동생은 학생 미사 반주자로, 가족 모두 온 교우들이 감탄하는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빠는 위령회원으로 봉사하다 장례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아이가 셋이라 학원을 갈 형편이 안되는 명학이를 본당 청년(서울대 졸업 후 예수회에 입회하였다가 나와서 수학 공부방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부탁하여 토요일 오후 본당에서 부족한 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경험을 해 보라는 취지로 예비신학생 모임을 추천해서 월 모임을 다니게 되었는데,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조금은 어수선한 본당 주일학교 미사와 달리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명학이 레오는 처음 성당을 찾아왔을 때의 조금은 어둡고 외로워 보이던 모습에서 편안하고 진중해 보이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달라져 보입니다. 중 2에서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지금은 예비신학생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대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명학이는 자기가 바라던 행복에 조금은 다가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국민 362737-04-000395 하나 355-910035-52905

신한 140-007-059957 우체국 013078-01-001984

기업 420-017389-01-018 제일 453-20-00292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ecokor@daum.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가나스틸
가정동성당
가좌동
강경아
강미현
강숙자
강신연
강연호
강원석
강향주
검암동성당
계림동성당
고려문화
고성철
고승현
고승희
고여숙
고은하
고재영
고지영
공창용
공해용
구웅회
권고은
권순영
권순익
권영오
권정신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기중현
길광일
김경순
김경재
김경희
김광기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
김기정
김나린
김남기김민정
김덕칠
김도상
김동현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민규
김별
김봉연
김봉현
김상률
김상태
김샛별
김서애
김선옥
김성미신소희
김성애
김성옥
김성용
김성원
김성현
김수경
김수영
김숙경
김순철
김애경
김애자
김에리사
김영순
김영옥
김영운손연희
김영인
김영자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김정예
김영춘
김영한
김옥림
김옥주
김용민
김용수
김용수여기정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란
김원숙
김유정
김윤기
김인회
김잔디
김재식
김재욱
김정매박치현
김정민
김정선
김정숙
김정애
김정웅
김정임
김정택어울회
김정화
김종연
김준희
김지선
김지성
김지영
김지혜
김진금
김진숙
김진식
김진욱
김채송
김철형
김추양
김춘자
김프란체스카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현희
김혜정
김호진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가경
남보라
남수민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순숙
노정애
당효준이순희
류정이카타리
마선안
마전성당
망미성당
명영희
모툴초경
문경애
문미형
문상원
문성식
문영호
문준식
민들레지역
민병관
민정웅
박금난
박기선
박문주
박민주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상미
박선정
박성덕
박성준
박성현
박소연
박소정
박소진
박수민
박수인
박순옥
박순자
박승민
박연애
박원서
박윤실
박은영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순임현서
박정식김호성
박정연
박주형
박준우
박찬순
박찬주
박찬희강동연
박태분
박태분최민정
박해필
박향식
박현애
박현희
박회수
박효정
박희순
밝은미래
방웅
방진
배수정
배영주김수영
배윤숙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백정금
버닝하트
변복자
변태식
보산야음
사랑나무치과
서덕순서득순
서명자
서수화
서울대교구
서춘자
서태진
서향란
서혜경
서혜석
석남성당
석상령
성아가다
성영신
성영주
소재록
손순덕
손은영
손은주
손정례
손정우
손주희
송경수
송명순
송순이
송승윤김서현
송영빈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순교성인성당
신동규
신승일
신아영
신용숙
신유라
신유주신상빈
신정성당
신주선신유경
신주화
신창규
신희식
안미령
안성민이재익
안양금
안자영조진상
안정임
양기흥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윤재
양종한
양천애덕회
여은지
연수성당
연희동성당
영적가족
오말희
오복연
오소영
오숙자
오승훈
오아영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옥인환
우상혁
우영희
우혜령
운남빈첸시오
원당동성당
원세경
유경진
유미경
유병춘
유성재
유수민
유영재
유은분
유은정
유주영
유채영
유춘성
유혜정
유홍순
유회숙
육동배
윤계남
윤규현
윤명자
윤명희
윤문섭문선미
윤미숙
윤보미
윤봉수
윤순희
윤임순
윤정미
윤정희
윤종화
윤한희
윤현숙
이가을
이갑수
이건희
이경재
이계호
이광희
이금용
이남순
이동준
이동현
이미란
이민희
이병철
이상문
이상숙
이상욱
이상호
이선영
이성구
이성남
이성엽
이성혜
이수진
이슬기
이승욱
이승은
이승희
이안나
이연실
이영규
이영복
이영애
이영옥
이영혜
이옥자
이원순
이윤신
이윤옥
이윤옥
이은미
이은정
이은주
이임수송재용
이재영
이재옥
이정란최윤
이정민
이정숙
이정원
이정은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
이종숙
이종옥
이종윤
이종은
이지연
이지인
이진욱
이채화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령
이해일
이현순
이현준이창석
이홍식
이희숙
인동FN
인용석
인천재속프란
임승욱
임정태
임지숙
임지원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민호
장세옥
장여주
장영구
장영문
장원태
장인용
장현아
장형숙
전경미
전순임
전순자
전은희
전주란
전충엽
전혜향
정경원
정경필
정광진
정동락
정명국
정명숙
정미영
정미희
정성민
정소영
정숙종
정영숙
정은희
정인순
정재훈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정찬영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건희최휘선
조경득
조규진조남섭
조금자
조봉례이성호
조상위
조석금
조선희
조성자
조순옥
조영주
조원균
조인주
조재호
조정희
조진면
조현주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주성미
지정희
진명옥
진성자
진숙인
찬미예수님
채성훈
천정원
청라성당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명숙
최문숙
최미선
최민자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승호
최애란
최영남
최영운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인석
최일순
최재석
최정선윤각의
최정일
최종국
최지은
최향미
최효순
최희선
추기연
추영숙김주년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퓨처로직스
하봉남
하옥경
한규영
한기훈
한상국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은주
한진경
한혜숙
한효정권오현
함광훈
허순자
허영주김건형
허재숙장효선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승희
홍익기
홍정임
홍종걸
황경희
황미순
황세원
황영곤
황윤서
황의택
황인복
황혜숙